

기획초청

부은 낙엽



국립극단

국립극단에서는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많은 관객 분들과 나누고자
공연 프로그램북 파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북이 연극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더욱 발전된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게재된 모든 원고, 사진 및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은 국립극단 및 해당 저자의 소유로
저작자의 허가 없이는 재사용(복제, 재인용 및 개인 SNS와 웹사이트 게시 등)이 불가합니다.

비영리 및 학술적 용도로 복제, 재인용을 원하시는 경우 국립극단 공연기획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perf@ntck.or.kr

기획초청

붉은 낙엽

원작 토머스 H. 쿡 Thomas H. Cook

각색 김도영

연출 이준우

일정 2021년 12월 8일(수) ~ 12월 27일(월)

장소 백성희장민호극장

제작 극단 배다

주최 국립극단



공연연보

2020년 9월

우란2경

우란문화재단 공연예술개발프로그램 '비공개 트리아아웃 공연'

2021년 5월 20일-5월 29일

아트원씨어터 3관(초연)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 선정작

수상

제42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무대예술상'
2021 월간 한국연극 선정 '올해의 공연 베스트7'

원작자의 글

I want to thank Vaeda Theatre Company, for the production they are mounting of *RED LEAVES* at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NTCK). Also, I want to thank NTCK, for inviting the production of *RED LEAVES*. The production was extraordinarily beautiful in every way, from the choice of fine actors to the gorgeous set design. I could not have been more honored to have mounted once again at the NTCK.

Thomas H. Cook

국립극단에서 <붉은 낙엽>을 올리는 극단 배다에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붉은 낙엽> 공연팀을 초청해주신 국립극단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덕션은 뛰어난 배우의 선정부터 아름다운 무대디자인까지,
모든 면에서 엄청나게 훌륭했습니다.
국립극단에서 다시 한 번 이 공연을 올리게 되어 더 없이 영광입니다.

토머스 H. 쿡

원작

토머스 H. 쿡

Thomas H. Cook



조지아주립대에서 영문학과 철학, 뉴욕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뉴욕으로 거처를 옮겨 US인더스트리얼 케미컬의 광고기획자, 장애인복지협회의 타이피스트로 일했지만, 소설가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조지아로 돌아와 대학에서 영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며 글쓰기에 전념하였다. 매거진 《애틀랜틱 먼슬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1980년 발표한 데뷔 소설 『블러드 이노센스』가 에드거상 최종 후보에 오른 후 전업 작가의 길을 선언하고, 두 편의 범죄 논픽션을 포함해 모두 26권의 책을 펴냈다. 인간 내면의 어둠을 집요하게 탐구한 이들 작품들은 각종 추리문학상에 단골 후보로 올랐고, 마침내 1997년 『채덤 학교 사건』으로 에드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로 거듭났다. 그의 작품은 세계 15개국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어두운 렌즈를 통해 밤을 그려내며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작가’,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천재 작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주요작품

소설

『붉은 낙엽 Red Leaves』 『블러드 이노센스 Blood Innocents』
『채덤 학교 사건 The Chatham School Affair』 『심문 The Interrogation』
『희생의 땅 Sacrificial Ground』 외

수상내역

2007 마르틴 베크상 Martin Beck Award 『붉은 낙엽 Red Leaves』
2006 배리상 Barry Award 『붉은 낙엽 Red Leaves』
1997 에드거상 Edgar award 『채덤 학교 사건 The Chatham School Affair』 외



I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겨울이다!
바닥에 쌓인 낙엽들이 웅덩이처럼 고여 있다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제 낙엽들은 본래 어느 나무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가능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원작에 대한 나의 이해이다.

어릴 때 종종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거실에 커다란 가족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가족사진 아래엔 소파가 놓여 있고, 그들은 머리 위에 걸린 가족사진 아래에서 행복했다.
나중에 친구의 집 거실엔 두 개의 가족사진이 걸렸는데, 하나는 내가 어릴 때 보았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고 난 뒤에 새로이 찍은 것이었다.
이전의 가족과 지금의 가족.
구성원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의 커다란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다시 원작으로 돌아가자.
소설 『붉은 낙엽』은 몇 장의 사진으로 특별했던 시절을 묘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미 이 출발점부터 독자는 에릭의 시선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에릭이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오직 사진을 통해서만 설명해주고 있다.
누군가가 두꺼운 앨범을 들고 나타나 거기에 담긴 사진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을
듣는 일은 꽤 지루하기도 한데, 『붉은 낙엽』은 쉽게 빨려 들어간다.
‘그런데 있잖아... 사실은 이 사진들이 말이야... 사실은 전부...’

그렇게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다.
(뭐야! 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본 작품이 가족의 이야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이라는 것의 속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누가 말했든가. ‘진실과 허구를 동시에 바라보게 하는 동전의 양면’이
사진이라고 말이다. 사진에서 미세하게 발견되는 틈.

『붉은 낙엽』은 굳게 닫혀 있던 이 틈을 향한 문을 서서히, 그리고 완전히 열어젖힌다.
그 끝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전의 앞면인가, 아니면 뒷면인가.

II

나는 종종 내가 하는 일이 연금술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고는 한다.
등가교환의 법칙에 따라, 머릿속에 넣었던 것을 분해하고 재구축하여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드는 일은 완전한 금은 아니더라도 연금술과 그 속성이
닮았다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색도 나에겐 이와 비슷했다.
원작의 재료들을 내 속에서 분해하고, 재구축해보되, 두께와 흐름을 잃지 말 것.
본 작업 역시 펼쳐진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사진들을 조합해
시간의 흐름을 맞춰보고, 무언가를 유추하는 과정이었다.
나무는 자라서 잎이 열리고, 시간이 흐르면 낙엽이 되어 땅을 향하고,
낙엽의 색들이 땅에서 변화하다가 이내 모든 수분이 증발하며, 바람에 날리고,
부딪치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그렇게 땅의 일부로 흡수되어 다른 세상,
다른 세계의 나무를 향한다. 낙엽의 이야기는 모든 것의 역사와 이야기에 융합된다.
그렇기에 에릭의 이야기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었다.
그들 가족을 둘러싼 붉은 낙엽이 흥흥함이었는지, 불길함이었는지,
아니면 아직 멈추지 않은 생명력이었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 한다.

III

각색의 경험이 거의 전무하였던 각색자를 믿어준 『붉은 낙엽』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공연을 하도록 허락해주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준 마음씨 좋은
숙 할아버지께도 감사하다. 지난 초연을 보러 와 주셨던 분들과 이번에 극장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다. 글 쓰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나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감사하다. 나에게도 고맙다. 끝!

연출가의 글

연출

이준우

Lee Jun Woo

극단 배다 대표



주요작품 연극

<왕서개 이야기> <수정의 밤> <아록과 루시> <포트폴리오> <무순6년>
<박씨전> <뭇>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외

수상내역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붉은 낙엽>
2020 제57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왕서개 이야기>
2020 공연과 이론 작품상 <왕서개 이야기>
2020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왕서개 이야기>
2020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 <왕서개 이야기>

“마치 우연한 이중노출에 의해 한 사진의 색깔이 다른 사진으로 번지는 것처럼,
한 가족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다른 가족을 물들이는지를 묘사하고 싶다.”

- 소설 『붉은 낙엽』 中

사진은 한 인간의 안과 밖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다. 이 공연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현상해서 인화해가는 과정과 닮아있다. 극 속의 인물이 떠올러가는 것들이 무대에 현상되어 멎혀진다. 그는 그것들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현상해가지만, 때론 명암이나 명도를 더 강렬하게 부각시키기도 하고, 완전히 몰입하여 그조차 알 수 없는 것을 인화하기도 한다.

<붉은 낙엽>은 범인을 찾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용의자로 지목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리를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아버지가 품고 있는 ‘의심’의 뿌리가 흥미로웠다. 그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소설의 언어를 무대의 언어로 만드는 과정은 설렘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소리 내지 못하는 것을 소리 나도록 해야 했고, 머릿속에 구름처럼 떠다니는 장면들을 눈앞에 붙들어 놓아야 했다. 극의 구성과 방향의 불안정함, 동료들과의 논쟁과 설득, 솔한 고민의 창작 과정을 지나면서 내 안은 의심으로 더욱 붉게 물들어 갔다.

나의 의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떻게 걷어내야 하는가.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방향, 아마 그걸 찾는 것 같았다.

나는 낯선 의심이 유독성 연기처럼 ... (중략) ...

피어오르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 내가 찾아야 할 건 무엇인가?

아마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방도를 생각해내는 것.”

- 소설 『붉은 낙엽』 中

일련의 여정 속에서 내가 찾은 것은 문제에 대한 해답보다 잠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사진을 찍기 전에 먼저 있는 그대로 대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과 내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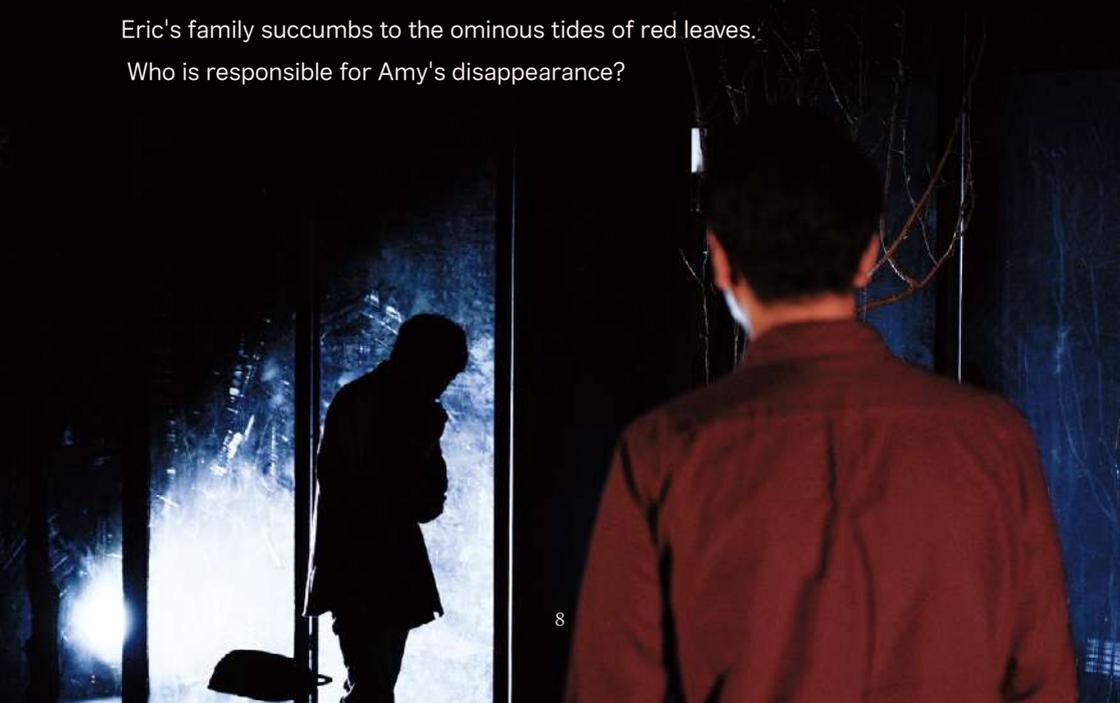
내 마음을 그들에게 내어 놓는 것.

“내 딸이 사라졌어.”

미국 웨슬리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에릭의 가족에게 이웃집 카렌의 어린 딸, 에이미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다. 실종 전날 밤까지 카렌의 집에서 에이미를 돌보았던 에릭의 아들 지미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믿음과 의심의 줄다리기 속, 에릭의 집안을 물들여가는 붉은 낙엽의 흉흉한 적조. 과연 범인은 누구인가?

“My daughter has gone missing.”

In the quiet town of Wesley in the United States, Eric's family enjoys peaceful autumn days. One day, their neighbour Karen's daughter, Amy, goes missing. Eric's son, Jimmy, who babysat the little girl the night before her disappearance, is a prime suspect. Amidst the rising tension between faith and doubt, Eric's family succumbs to the ominous tides of red leaves. Who is responsible for Amy's disappearance?



에릭



박완규 Park Wan Kyu

연극

<밀바닥에서> <서교동에서 죽다> <파우스트 엔딩> <물고기 인간>
<괴벨스 극장> <줄리어스 시저> <국물 있습니다> 외

바네사



김원정 Kim Won Jung

연극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간이든 신이든> <춤의 국가>
<만약 내가 진짜라면>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레드 올랜더스>
<보팔, BHOPAL(1984~)> <자본> <꿈> <여전사의 섬> 외

지미



장석환 Jang Seok-hwan

연극

<지하 6층 앨리스> <그 곳이 멀지 않다> <여자는 울지 않는다> <함박>
<여전사의 섬> <나에게는 얼굴을 쓰다듬을 손이 없다> <그 개>
<두 번째 시간> <나의 엘레닌> <나는 형제다> 외

출연진



워렌

권태건 Kwon Tae Geon

연극

<묵선> <불씨> <강철로 된 무지개> <두뇌수술> <데모크라시>
<썬사인의 전사들> <말뚝의 눈물>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노벨버> <해무> 외



빅터·한스

선종남 Sun Jong-nam

연극

<아인슈타인의 별> <립, 명!> <작전명 DMZ> <프로메테우스의 간>
<조치원 해문이> <시대는 써커스의 꼬끼리를 타고> <연변엄마> <홍도>
<데모크라시> <히스토리 보이즈> 외



피크

구도균 Koo Do Kyun

연극

<정의의 사람들> <물고기 인간> <밤이면 나는 우주로 간다> <함익>
<옥상밭 고추는 왜> <헨리4세 - 왕자와 폴스타프> <테블 인사이드>
<14인 체홉> <지상 최후의 농담> <바람직한 청소년> 외



카렌 브로디

하지은 Ha Jee Eun

연극

<The welkin> <그 밤과 친구들> <목적지수> <고래가 산다>
<꽃은 사절합니다> <게임> 외

무용극

<비극> <이방인들의 축제>



레오

이호철 Lee Ho Cheol

연극

<양갈래머리와 아이엠에프> <스카펫> <시라노 콤플렉스> <뼈의 기행>
<한여름밤의 꿈> <오슬로> <얼굴도둑> <크리스토퍼 논란클럽>
<카프카의 소송> <휴먼코메디> 외



고든 외

이의령 Lee Eui Ryeong

연극

<미궁> <늑대가 부른다> <개의 심장> <인간이든 신이든>
<코볼소> <윙이자랑> <그때, 김상열 - 애니깽> <바람직한 청소년>
<사건발생 1980> <데미안> 외



에이미

장승연 Jang Seung Yeon

연극

<당통의 죽음> <어둠상자> <우리가 아직 살아있네요> <춘향>
<심청> <트로이의 여인들> <그리스의 여인들 안티고네> <스톡홀름>
<왕과 나> <신시아화> 외

“맞아, 내가 싫어하는 건 가을일지도 몰라.
나뭇잎이 저렇게 떨어져 버리는 게 싫은가 봐.”

여기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이 있다. 전자는 아버지고, 후자는 그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로부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다소 김빠지는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이 작품에서 진실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이웃집 손가락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마을. 이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여덟 살 여자 에이미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에이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열여섯 소년 지미. 용돈 벌이로 베이비시터를 하는 지미는 그날 밤 에이미를 보았던 마지막 목격자다. 그렇게 며칠. 사건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지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사실 그날 지미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날따라 지미는 일이 끝난 후 산책을 하겠다며 늦은 귀가를 했다. 그러나 걸어서 귀가했다는 진술과 달리, 그날 지미가 귀가했을 때, 자동차 전조등 불빛을 에릭은 보았다. 에릭은 지미의 아빠다. 그리고 보면 지미의 행동에 의문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에릭의 눈에 지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인다. 결정적으로, 경찰이 압수해간 지미의 컴퓨터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발견된다.

다른 이들에게 아들의 무고를 주장하지만, 에릭의 마음속에 싹튼 의심이 계속 자라난다. 자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오죽할까. 그러나 부모로부터 의심을 사는 자식의 심정이 비할 바는 못 될 것이다. 그런 부모가 야속해서일까. 지미는 더욱더 입을 다물고, 동굴 속으로 숨어버린다. 진실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지만, 이 작품에서 진실은 부차적인 문제로 보인다. “진실을 알아야 돼”라는 에릭의 말에 아내 바네사가 답한다. “진실? 의심 아니고?” 여기까지의 서사는 연극 <붉은 낙엽>의 두 기동 중 한 기동이다. 이야기는 에릭을 중심으로 두 가족사를 보인다. 에릭과 바네사, 지미의 가족사. 그리고 에릭과 그의 부모, 그리고 에릭 형의 가족사. 에이미의 실종 사건으로 촉발된 에릭의 의심은 단란했던 가족의 기동을 갈아먹는다. 나중에는 다른 기동마저 갉아 먹는다. 에릭의 의심은 모든 것을 파탄 내버린다. 이쯤에서 원작의 한 대목을 옮겨 본다.



연극 <붉은 낙엽>은 토마스 H. 쿡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작품으로, 이 소설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장이다.

“의심은 산(酸)이다. 그게 내가 아는 한 가지다. 산은 물건의 매끄럽게 반짝이는 표면을 먹어 치우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의심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 오랜 신뢰와 헌신의 수준을 차례차례 부식시키며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 의심은 언제나 바닥을 향한다.”

의심은 바닥을 녹여버린다. <붉은 낙엽>에서 의심은 이 사회의 가장 근간이 가정, 부모·자식의 관계마저 녹여버린다.

여기서 제일 앞에 인용한 바네사의 대사 “내가 싫어하는 건 가을일지도 몰라. 나뭇잎이 저렇게 떨어져 버리는 게 싫은가 봐”에 대한 해석을 붙여야 할 것 같다. 그가 싫어하는 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인지도 모르겠다. 나뭇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처럼 초라한 진실을 마주하는 게 싫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그들의 가정을 유지했던 건, 왜소한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 아니라, 침묵으로 덮었던 시간들이었는 지도 모르겠다.

탄탄한 원작이 없었다면 이 마음의 지옥도는 무대화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더해 원작을 훼손치 않고 사건과 인물을 무대에 적절하게 압축한 각색(김도영)과 연출(이준우)의 몫도 크다. 무엇보다 에릭(박완규)과 지미(장석환)를 중심으로 한 열 명의 배우들의 호연은 기립박수가 아깝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의 무대디자인(신승렬) 또한 함께 적어 놓아야 할 것이다.



공연스케치





극단 배다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과거를 긴밀하게 이어주는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하고, 역사를 고찰하는 작업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공동체의 선과 정의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화해와 포용,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내고자 합니다.

극단 연혁

- 2021. 제42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붉은 낙엽>, 아트원씨어터 제3관 제4회 중국희곡낭독 <장 공의 체면>, 명동예술극장
- 2020. <늬도, 짚도, 웃으시나뇨, 노하시나뇨>, 을지공간 남산시즌프로그램 <왕서개 이야기>,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2019. <늬도, 짚도, 웃으시나뇨, 노하시나뇨>,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 <아록과 루시>, 홍익대 아트센터 소극장 2019 서치라이트 <왕서개 이야기>,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 2018. <뭇>, 여행자극장 <꿈꾸는 소녀>, 여행자극장 <무순 6년>,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2017. <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서촌공간 서로 '극단 배다' 창단



사진제공 극단 배다

출연

- 에릭 박완규
- 바네사 김원정
- 지미 장석환
- 워렌 권태건
- 빅터·한스 선종남
- 피크 구도균
- 카렌 하지는
- 레오 이호철
- 고든 의 이의령
- 에이미 장승연

스태프

- 원작 토머스 H. 쿡 Thomas H. Cook
- 각색 김도영
- 연출 이준우
- 무대 신승렬
- 조명 최보윤
- 음악 장한솔
- 음향 이현석
- 의상 EK
- 분장 장경숙
- 조연출·무대감독 장한새
- 조연출보·음향오퍼레이터 심보람
- 제작 프로듀서 임예지
- 무대조감독 예유준 오태광
- 조명 오퍼레이터 오태광
- 조명어시스턴트 유보민
- 분장어시스턴트 남혜연
- 무대제작 A.PIC (대표 전종혁)
- 제작감독 최세현
- 이현정 박동민 양호성 박수중
- 조명팀 STAGEWORKS (대표 김영빈)
- 김슬기 나홍선 정주연 정찬영 최인수
- 의상제작 EKCOSTUME (대표 이은경)
- 음향팀 오기택
- 작품개발 우란문화재단
- 제작 극단 배다

국립극단

- 무대감독 신승호
- 조명감독 김용주
- 음향감독 음창민
- 홍보·마케팅 총괄 정용성
- 홍보 이정현 최윤영
- 마케팅 박보영 노소연
- 온라인마케팅 오지수 조영채
- 서포터즈 극단적 낭만인 8기 김보연 김연정 김해든 박예지 유연지 이지민
- 메인디자인 페이퍼프레스 (대표 박신우)
- 응용디자인 스튜디오 불땀 (대표 김은총)
- 연습·공연사진 이강물
- 옥외광고 영기획 (대표 서성원)
- 홍보물인쇄 인타임 (대표 김종민)
- 티켓 김보전
- 대표안내원 김경은 김인혜 채수환
- 하우스매니저 김나래
- 하우스안내원 정진영 임지은 송솔 김지수 박주은 임지현 고계령 박소담 손유희 김민경 문채림 연희원 조세찬 최민아 한세린
- 프로그램 디자인 스튜디오 불땀 (대표 김은총)
- 프로그램 공연사진 제공 서울연극협회 (사진 황호규) 우란문화재단
- 프로그램 인쇄 미림아트 (대표 신동복)
- 기획 총괄 김옥경
- 기획 프로듀서 김정연
- 주최 (재)국립극단
-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 사무국장 오현실

재단법인 국립극단

(재)국립극단 이사회

김상현 이사장 네이버(주) 前 대표이사
김광보 이사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길해연 이사 연극배우
김명화 이사 극작 및 평론가
심재찬 이사 연출가
이상우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경 이사 건국대학교 교수
정재승 이사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철호 이사 국립중앙극장 극장장
윤성천 이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김혁수 감사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단장 겸 예술감독

김광보

사무국장

오현실

경영관리팀

정광호 팀장
신민희 대외·평가·예산·감사
현승은 박지민 김수아 예산·회계·세무
정병욱 시산·용역·공사
박예원 인사·복무·복지후생
이민희 이사회·제도·교육
주현우 노무·자산·계약·정보화·전산
김시내 비서·윤리경영·경영공시

작품개발팀

지민주 팀장
한나래 조유림 작품개발·학습
이지연 아카이브
홍혜림 청년인턴
박설아 연수단원

공연기획팀

김옥경 팀장
정채영 이정민 김훈일
박소영 윤정민 김정연 프로듀서
박소영 연수단원

홍보마케팅팀

정용성 팀장
최윤영 이정현 홍보
박보영 김태은 오지수 김수현
이승이 변정원 조영채 마케팅
이현아 김보전 김보배 김효진 티켓
김나래 이기쁨 하우스매니저
노소연 청년인턴

무대기술팀

정광호 팀장
김무석 기술감독
신승호 김정빈 나혜민 김태연 무대감독
홍영진 이승수 경은주 무대제작감독
음창인 이병석 박정현 장도희 음향감독
김용주 류선영 임수연 조명감독
박지수 무대의상감독
박기완 정하윤 허정윤 연수단원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김성제 소장
김미선 프로듀서·국제교류
손준형 최은수 연구개발
박성연 공연제작·사업기획

2020-2021 시즌단원

강현우 고애리 권은혜 김명기 김보나
김세환 김예림 문예주 박소연 박용우
송석근 이상홍 이원준 이유진

사람의 마음을 혼란시키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다.

에픽테투스 Epictetus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양한 기념품을
만들어 주세요.

2019.10.
<알리바이 연대기> 관객 의견



마스크 테이프 등
기념품 추가 제작

2020.1.



자판기 판매 음료를
늘려주세요.

2019. 4.
<갈릴레이의 생애> 관객 의견



극장 내
자판기 메뉴 추가

2019. 5.



프로그램북을
구하고 싶어요.

2018. 6.
<얼굴도둑> 관객 의견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 개시
(홈페이지)

2018. 8.



오늘도 국립극단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여 고객만족도조사(약 1분 소요)에 참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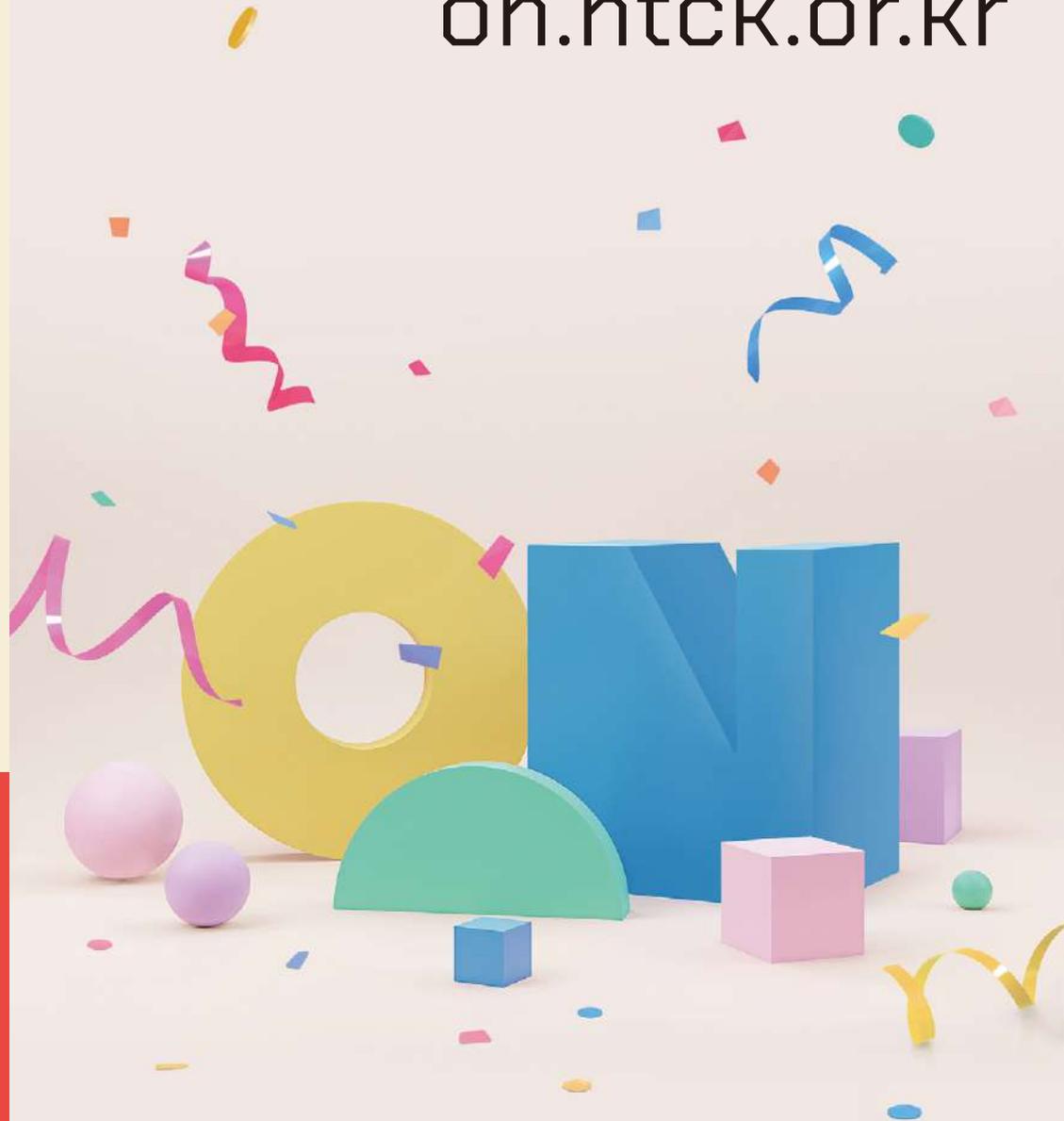
* 고객만족도조사는 공연 기간에 한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극단의 새로운 극장



온라인 극장

on.ntck.or.kr



THE NATIONAL THEATER COMPANY OF KOREA

우리 가족은 붉은 낙엽에 뒤덮여 있었다.
우리 가족을 덮친 그 흉흉한 낙엽들을 어떻게 쓸어버려야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3 국립극단
373 Cheongpa-ro, Yongsan-gu, Seoul, Korea(04302)

서울시 중구 명동길 35 명동예술극장
35 Myeongdong, Jung-gu, Seoul, Korea(04534)



국립극단